

# 고흥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공장 가동

## 3362㎡ 규모 준공, 年 120만ℓ 생산... 필리핀에 20만ha 원료 양식장도 마련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장이 고흥에서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고흥군은 24일 오후 도양읍 소재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연구센터에서 연간 120만ℓ의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병중 고흥군수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시스템즈㈜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 후에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탄올이 나오는 과정을 시운전한 후 이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시승행사와 함께 열렸다. 이 사업은 150억원(국비 90억원, 민간자본 60억원) 규모의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돼 그동안 연면적 3362㎡의 공장을 신축, 설비 도입·시운전을 거쳐 상용 플랜트용 시설을 갖췄다. 또 원료확보를 위해 고흥 인근 해역에 연 3모작이 가능한 해조류 실험 양식장을 조성하고 필리핀에 20만ha 규모의 양식장을 마련했다. 김인식 바이오시스템즈 대표이

사는 "꼭둑게 바이오에탄올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파일럿 플랜트 시험 운전 결과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수율은 원료 투입량 대비 20% 안팎으로 연구결과와 실제 실험수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여 꼭둑게 바이오에탄올을 대체할 충분한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바다공간을 활용하는 해조류는 연 4~6모작을 통해 대규모 양식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육상 경작지가 따로 필요 없고 홍조류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옥수수 못지않게 높아 공정비용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병중 군수는 "실증공장은 전체 설비의 90%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며 "향후 상용플랜트 관련 사업을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지역특화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 고흥군-에버랜드

#### 농수산물 납품 협약

고흥군은 24일 군청 상회실에서 삼성에버랜드와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고흥군은 지



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을 삼성에버랜드에 고정적으로 납품한다. 양측은 추후 협의를 통해 납품 품목과 분량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고흥군은 삼성그룹 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을 초청해 지역 식재료 현장투어를 실시하고 임직원 휴양 시설, 교육시설 유지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산지 직거래를 통한 중간유통단계 비용절감으로 지역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 문열공 김천일선생 추모제

제421주년 문열공 김천일선생 추모제가 24일 오전 10시 나주 정렬사에서 임성훈 나주시장과 박영욱 나주향교 전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제는 문열공이 임진왜란 당시 호남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것을 기념해 매년 음력 5월 16일 거행된다. (나주시 제공)

제421주년 문열공 김천일선생 추모제가 24일 오전 10시 나주 정렬사에서 임성훈 나주시장과 박영욱 나주향교 전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제는 문열공이 임진왜란 당시 호남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것을 기념해 매년 음력 5월 16일 거행된다. (나주시 제공)

## 여수시 모든 시민에 여객선 운임 반값 할인

### 관내 도서 10개 항로

여수시민은 앞으로 관내 섬을 오갈 때 여객선 운임의 반값 내면 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여수시민이 관내 섬을 오가는 10개 항로의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의 절반을 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반값만 내면 승선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관련 '여수시 도서지역

여수~제주 노선도 포함했다. 배차 할인을 받으려면 매표 전에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여수시민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우선 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며 "섬주민 외에 육지 주민까지 반값 배차 혜택을 받기는 전남에서 여수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 대나무박람회 등 국제행사 유치

### 담양군

민선5기 들어 담양군은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세계대나무협회 제10차 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는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우여곡절 끝에 친환경살의 인증이 취소됐지만, 민선 3기부터 노력해 딸기 신종종 '죽향'과 '담향'을 개발하고, 농정 분야의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그리고 담양 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도 성과로 분류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4일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군민들에게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이라는 목표와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서비스형 지방정부' 등 군정의 3대 정책기조를 약속했는데 상당부분 이를 실천했다"고 자평했다.

최 군수는 또 오는 2015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소에서 찾는 녹색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될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세계대나무총회(WBO) 등을 통해 담양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 1조2000억원 투자 협약

### 거주 인구 늘리기 시급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 적극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에 나선 결과 첨단 문화복합단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 등 57개 업체에서 1조 2313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은 것도 괄목할 만하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일원에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 1000세대의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광지로서의 명성도 쌓이고 있다. 죽녹원 연간 관광객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 CNN방송의 '한국에서 가봐야 할 곳 50곳'에 선정되는 것은 물론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유료화 이후 관광객 42만명이 찾았다. 지난해 주요관광지 입장료 수입만 26억원을 벌어들여 이를 노인복지와 고등학생 무상교육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5기 공약종합평가에서 공약이행 완료도 SA등급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등급을 받아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도시 광주의 인접 지자체로, 실제 거주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민선 5기 들어 집중되고 있는 개발·축적 관련 사업의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폴포츠 여수 예술마루 감동의 무대

### '문화관람 나들이' 지원

### 청소년 323명 공연 관람

희망을 노래하는 스타 성악가 폴포츠(영국)가 지난 23일 여수 예술마루에서 감동의 무대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사진)

24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추진중인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문화관람 나들이'를 통해 여수지역 청소년 323명이 공연을 관람한 후 폴포츠와 기념촬영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수정보과학고 관악부 이주영(18)군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폴포츠의 목소리를 예술마루에서 직접 듣게 돼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저도 폴포츠 선생님처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 꼭 건축가의 꿈을 이루겠



다"고 말했다. '문화관람 나들이'는 사회·경제·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중 하나다.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남문화예술포럼 누리집(www.jncf.or.kr) 문화이용권 코너와

기획경영팀(061-280-580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원 전남문화재단 사무처장은 "폴포츠 내한공연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민에게 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 개장일 : 2013. 7. 5